

AI 집적단지 2단계 예산 미확보·반려동물 복지정책 '도마'

박수기 "기업 협약·유치 성과 전무...광주시, 사업 확산 못 짊" 최지현 "유기동물 매년 수천마리 발생...체계적 관리 필요"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을 위한 용역비 예산 미확보와 반려동물 복지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민주·광산5)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공지능(AI) 융합산업 이미지를 선점한 광주시가 2단계 사업기획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은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시설을 고도화해 AI 기술 확산과 산업계와의 접촉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본사업에 가까운 것인데, 반대로 특화단지 사업유치와 혼동됨으로써 기업들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104개 기업을 유치,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개소한 반면 지난 7월부터는 기업협약이나 유치로 볼 수 있는 성과가 없다"며 "이는 기업들에 광주시 새 집행부가 2024년 이후 2단계 사업유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AI 실증·창업동 건축이 부

지 매입 등을 이유로 늦춰지고 실증사업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며 "각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을 재점검해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2단계 사업기획 용역비인 국비 10억 원은 앞으로 열리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사업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AI국가데이터센터 운영협약사인(NHN이 제출한 3000억 원의 세부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투자 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HN은 10년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AI데이터센터 IT투자 1000억 원 ▲데이터센터 설비 비용 200억 원 ▲IT 자산유지 840억 원 ▲NHN아카데미 120억 원 ▲R&D센터 830억 원 ▲AI 페스티벌 10억 원을 배정했다.

박 의원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NHN과의 협약이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 가동 등을 당부했다.

최지현(민주·광산1)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만에 가깝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비해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4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양육두수도 약 26만 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유기동물 발생은 매년 3000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광역동물보호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현재 과포화 상태인 동물보호소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기와 개몰림 사고, 동물학대, 동물 반

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장묘시설과 같은 기본 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상존한다"면서 "지속적인 동물 입양과 문화교육 관련 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묘시설 구축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는 반려동물 복지시설에 대한 늘어난 요구로 인해 2020년 남구청과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문화교실을 추진했지만, 일회성 사업에 그쳤고 동물장묘시설 또한 구청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공공동물장묘 시설 추진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공공 장묘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락공원 3단계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전남·경북 지자체, 지역균형발전 상생화합 선언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 공생공영 미래비전 선언문 발표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의 양대축인 전남도와 경북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영호남 상생화합을 선언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지금은 지방시대 하나되는 영호남'을 주제로 열린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에서 굿비를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에서 영호남 지역민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지금은 지방시대), 하나되는 영호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유림과 문화예술인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인 비전 선포식은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을 예술로 표현한 전남·경북도립국악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청년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민주화·산업화 과정에서 헌신한 전남과 경북이 이제는 영호남 화합을 통해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겼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육성,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발굴 등 구체적인 약속도 포함됐다.

양 지사와 도의회의장은 7000여 명의 관람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서명해, 비전선언문의 무게를 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전남과 경북이 주도하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열어가자"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영호남 중심의 발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과 경북이 힘을 모아 남부권

영호남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비전을 제시했다.

대축전의 대미는 영호남 출신 가수들이 참여하는 화합콘서트가 장식했다. 호남 출신 송가인, 진성, 영남 출신 이찬원, 정민호 등이 참여해 저마다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 행사의 피날레는 주요 귀빈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화개장터'를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9년 시작한 전남과 경북의 상생협력은

그동안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앞으로 부울경, 호남권 등을 포함 남부권 전체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소 남다른 우애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김영록 지사와 이철우 지사가 함께 제안해 이뤄진 이번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은 내년에 전남에서 개최하는 등 정례화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문화재 보수 469억 확보

전년보다 110억 증가...여수 진남관 보수·장흥 천관사 선원 재현 등

전남도가 2023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91건이 선정돼 국비 46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11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690억 원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자산인 유구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복원, 훼손방지 등 가치 향상을 위한 것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보수정비의 경우 여수 진남관 해체 보수 28억원, 장흥 천관사 선원 재현 24억원, 해남 미황사 대웅전 보수 18억원, 고흥 순천교 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 18억원 등 213건 약 655억원이다.

전원기념물 보수·치료는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1억원,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1억원 등 42건 8억원이다.

이 외에도 방충·방염에 13건 5억원, 추가 이영익기에 23건 21억원 등이 배정됐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와 체계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각종 정비, 관람객의 관람 환경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것이다.

또 전남도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외에도 자체 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재해 긴급보수,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 등 문화재 원형 보존과 보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 설계공모

20일까지 접수...12월 16일 당선작 발표

광주시는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 건립사업은 선비문화 정신의 산실인 월봉서원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의 산실인 문화전당을 연계한 문화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산구 광산동 월봉서원 인근에 총사업비 119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26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광주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일체화하면서 월봉서원의 전통성을 담은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전통한옥양식 또는 현대건축을 포함한 한옥건축양식의 디자인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축 설계공모는 오는 20일 참가등록을 받

는다. 12월 2일까지 설계안을 접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4억원 상당의 설계권이 부여되고, 210일만에 걸쳐 건축설계를 완료하게 된다. 기타 입상자(4위 이내)에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보상이 지급된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도시과장은 "체험복합관이 조성되면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유교 전통문화 등 선비문화를 체험하면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남대표 서원인 월봉서원의 명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많은 작품이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키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0월호

2022년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사투리

문화콘텐츠로 부활

사투리가 살아난다 • 사투리를 디자인하다 • '사투리 시집' 문클함 감동

연중 기획-광주 한 바퀴
GWANGJU TOUR

향은 온통 가을, 바다 내음 채운다
1004섬의 풍경, 신안

자은도·압해도 여행/기점·소악도 '섬타고' 순례
증도의 영생식물원과 태평염전
향은 온통 가을 대피터라 / 청정 신안 건강 맛집
보라색 레시피 가득한 반월도 카페

#10월 광주축제여행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영산강 서창들녘 역사축제
#추억의 광주중앙 월드컵페스티벌 & 버스커즈 월드컵

에앙 초대석

네 번 유라시아대륙 횡단한 탐험가
김현국
"탐험 경험을 공격 가치로 만들고 싶습니다"

화제의 현장
한국 천주교의 산 역사
윤공희 대주교
'백수 기념 미사' 봉헌식

해외문화기행 ㉓
미국 최초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오스틴

화제의 전시
전남도립미술관·광주일보사 주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10.6~2023.1.29 까지